주 간 기 도 정 보

2024. 3. 12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지난해 한국교회 파송 장기 선교사 174개국 21,917명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주관, 한국선교연구원 조사 및 발표 '2023년 한국선교현황'

2023년 한국교회가 파송한 한국 국적 장기 선교사는 174개국 21,917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1.3%(28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여전히 선교사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장기 선교사 평균 연령은 2021년부터 매년 평균 0.6세씩 증가했고, 10년 이내 은퇴 대상자인 60대 이상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29.36%(6,435명)를 차지해 급속한 선교사 고령화 현상과 함께 선교사 은퇴 문제가 대두됐다. 이와 동시에 다음세대 선교 동원 및 선교 훈련이 한국교회 선교의 중요 과제로 나타났다.

7일 서울 노량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회의실에서 '2023년 한국선교현황' 발표회가 열렸다. 2023년 한국선교현황 보고에 따르면, 174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 21,917명의 장기 선교사, 451명의 단기 선교사, 한국 선교단체가 파송한 타 국적 국제선교사 950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에는 193개 단체(86.5%)가 응답했는데, 전체의 67.91%가 50대 이상이었고, 29.36%는 60세 이상이었다. 30세 이하는 6.92%, 40대는 25.17%였다. 전년 대비 60-70대 비율은 증가하고, 50대 이하 연령의 비율은 모두 감소해 평균 연령도 전년보다 0.6세 늘어난 53.7세였다.

한국선교연구원 홍현철 원장은 "2004년, 2012년과 더불어 2020년 이후를 보면 50-60대 구성이 점점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 10년 뒤가 되면 2명 중 1명은 60대 이상 선교사로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추세라면 10년 사이에 적으면 2-3천, 많으면 3-4천 명의 선교사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한국교회가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홍 원장은 지난 30년간 연령별 장기 선교사 수의 추이를 소개하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며 "젊은 선교 헌신자의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지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한국선교를 새롭게 잘 조정한다면 한국선교의 지속성을 위한 연령 구성의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40대 선교사는 2004년 5,381명→2023년 5,517명으로, 수치적으로는 2004년 때와 2023년이 비슷했다. 30대 선교사는 1994년 1,715명→2004년 4,686명→2012년 3,540명→2023년 1,346명이었다. 한편,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의 비율은 2.91%로, 2022년 3.50%보다 감소했다.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의 연령 분포는 40대(38.8%), 50대(25.4%), 30대(22.6%), 60대(7.0%), 29세 이하(4.8%), 70세 이상(1.4%)이었다.

또한, 한국 국내 단체가 파송한 타 국적 선교사는 59개 단체에서 76개국의 950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홍 원장은 "타 국적 선교사를 한국선교의 과업 달성을 위한 선교 자원의 확산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동반자적이며 상호적 관계로 생각한다면, 좀 더 장기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이사야 52:7,10)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디모데전서 1:15)

하나님,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주사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방을 섬기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분깃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르심에 순종하신 모든 선교사님에게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사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감격과 복음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보내는 자나, 나가는 자나 동일한 믿음과 성령 안에 선교를 위해 힘쓰게 하시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영광의 복음을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사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내가 그를 책망하고 불쌍히 여기리라"

김정은, 연이틀 군사훈련 지도…'서울 타격 임무' 포병훈련 시찰

그러나 최전방 군인들 군복 기워입을 정도로 공급이 어려워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가 금주 시작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틀 군사훈련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조선인민군 대연합 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적의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전쟁 억제의 중대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경선 부근의 장거리 포병 구분대" 등이 훈련에 참여했다고 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겨냥한 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훈련은 화력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위력 시위와 각 포병부대의 표적 명중 발수와 임무 수행 시간을 종합해서 순위를 정하는 경기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과에 만족을 표한 뒤 "모든 포병구분대들이 실전에 진입하는 시각에 무자비하고 빠른 타격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경상적인(변함없는) 전투 동원 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더욱 완강히 내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포병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기 위한 실동 훈련을 보다 실속있게 조직, 진행함으로써 우리 군대의 자랑이고 기본 핵인 포병의 위력을 계속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이 '포병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중요 과업'들도 제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하루 전인 6일에는 서부지구 중요 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 그가 연이틀 군부대 훈련 시찰에 나선 것은 지난 4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한편 데일리NK는 지난 5일 북한이 국방과 경제건설 모두에서 군인들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군 후방물자 공급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사적 요충지인 서부전선 최전방 주둔 2군단 군인들도 군복을 기워 입을 정도로 군 피복공급 실태가 한심하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긴장 분위기를 고조하면서 당장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게 만반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최전방 군인들에게 피복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출처: 연합뉴스, 데일리NK 종합).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31:20)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시편 53:1,6)

하나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겨냥한 포격 훈련을 과시하며 자랑하지만 정작 최전방의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군복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북한의 실상을 주님께 고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돌보기보다 군사력 강화에만 힘쓰며 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켜 전쟁을 도발하고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을 주께서 책망하시고 남북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북한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든 영혼에 부어주셔서 주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복덩어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교회들이 기도의 성벽을 쌓으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예배가 멈추지 않는 은혜의 땅 되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청소년 범죄 5년 새 2배 ‘껑충’…교회 공동체에 답 있다

경찰청, 청소년 범죄 저연령층화 뚜렷해져…‘교회가 이들의 버팀목이 돼 줘야’

촉법소년 수가 5년 새 2배 급증했다. 6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수는 총 6만 5,98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0-12세 촉법소년 수는 180-200%가 상승해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 추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 중에서는 절도가 3만 2,673명(49.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폭력 1만 6,140명(24.5%)과 기타 1만 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범죄 항목은 마약범죄로 2019년 2명에서 2023년 50명으로 25배 상승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통계에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다음세대 사역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이전에 공동체성을 띠는 한국교회가 사랑과 환대를 베풀었는지 자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에 대해 기독교계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함승수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청소년 범죄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 범죄는 반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국교회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인 자아상’이 강화돼 일탈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커진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사무총장은 “오늘날 청소년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점과 우리 어른들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 외에도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폭넓은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을 부각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주고 제자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결손 가정에 대해선 교회가 공동체성을 통해 가정과 같은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상락 미국 바키대학원대 선교학 교수는 "촉법소년들에겐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힌 자녀들의 잘못된 인식과 죄성이 주님 안에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을 통해 전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단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교정선교 등이 그 예시다. 함 사무총장은 "소년원에서 출원한 이후 5-9개월 이내에 재범이 많이 일어난다"며 "깨진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소년원을 출원해도 돌아갈 가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린도전서 4:15-16)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로마서 6:19,22)

하나님, 청소년 범죄율 증가와 점점 낮아지는 범죄 연령층 소식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인생을 방황하며 갈 곳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간구합니다. 촉법소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사 사탄의 종이 되어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병든자아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며, 참된 회복과 변화를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음세대를 섬길 때 진리의 사랑이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한 몸 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원형 생명으로 변화된 이들을 통해 존재를 바꾸시는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 목마른 청소년들이 주께 나아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주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